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서면 허락없이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2015년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인문계_온라인)

고교명 :

성 명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 각 문제의 답안은 표시된 문제지 번호에 맞춰 화면 우측의 '답안 입력 영역'에 작성하시오.
- ◇ 각 문제마다 정해진 글자 수(분량)는 띄어쓰기를 포함한 것이며, 정해진 분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 ◇ 답안은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오.(연필 사용 가능)
- ◇ 답안 수정 시 원고지 교정법을 활용하시오.(수정 테이프 또는 연필지우개 사용 가능)
- ◇ 답안 내용 및 답안지 여백에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쓰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의 불필요한 기표 등을 하지 마시오.
- ◇ 모든 답안은 유사도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자 답안 간의 유사도를 검색하고 있으며, 유사도가 높은 답안은 채점을 시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주어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사회의 구성요소들이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 산업과 시장은 사회의 존속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법률과 규범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하나의 요소에 문제가 생겨 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사회가 급격히 와해되는 일은 없다. 상호 의존적인 요소들이 불균형의 상태를 해결하고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는 갈등이나 분열보다는 안정과 조화, 그리고 균형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회의 역할은 구성원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배된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위신, 정치적인 권력과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를 모두가 만족할 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단과 개인들은 희소가치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공정한 경쟁이란 거의 불가능하며, 존재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더 많은 희소가치를 차지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을 지배하고 착취하기 위해 현존하는 불평등과 지배의 구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지배 계급은 피지배 계급을,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엘리트들은 일반 대중을 지배하고 착취함으로써 더 많은 희소가치를 획득한다는 것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꽃피웠던 산업화 시대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식·정보 사회로 급속하게 바뀌었다. 산업사회가 제조업 중심사회로 자본이 부가가치 창출의 주된 수단이었다면, 지식·정보 사회는 서비스업과 정보 네트워크와 함께 각종 정보화 기기의 보급으로 첨단 산업중심 사회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주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의미도 상당부분 달라지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이 주로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노동이었던 데 반해, 지식정보 시대의 노동은 지식과 기술, 즉 인적자본이 결합된 노동의 비중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해 진다.

- 『고등학교 경제』

[문제1] 제시문 [가]와 [나]는 사회제도나 변동을 바라보는 상반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에 나타난 "지식·정보 사회"로의 사회변화가 경제현상에 미칠 영향을 각각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이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인재요건들을 기술하시오.

<13 ~ 15줄 (390 ~ 45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경 전달 물질이란 뇌를 비롯한 체내의 신경 세포에서 방출되어 인접한 신경 세포 등에 정보를 전달하는 물질을 말한다. 그 중에서 뇌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이 있는데, 이를 합성하고 방출하는 신경 세포를 세로토닌 신경 세포라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자극을 받아 흥분하면 세로토닌을 가득 담은 소포체는 신경 세포 안에서 전기 신호를 통해 신경 말단으로 이동한다. 흥분이 신경 말단에 도달해 신경 세포막과 소포체가 결합하면, 소포체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세로토닌이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다. 이때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을 인접한 다른 신경 세포의 수용체가 받아들여 흥분이 전달된다. 세로토닌은 이처럼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의 정보만 받아들이는 수용체를 매개로 작용하며, 시냅스 틈으로 방출된 세로토닌 중에서도 세로토닌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고 남은 것은 세로토닌 신경 세포 말단에 있는 세로토닌 수송체로 다시 흡수돼 재활용된다.

세로토닌 신경 세포는 그 자체에 스스로를 조절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를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자기 수용체는 세로토닌의 양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일종의 자기 억제 회로에 해당된다. 그런데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는 자극에 따라 유전자의 발현 여부가 달라져서 그 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신경 세포가 받는 자극이 적거나 없으면 유전자가 발현되어 자기 수용체 수가 늘어나게 되고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자기 수용체 수는 적은 상태가 된다. 만일 자기 수용체 수가 늘어나면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이 낮아져 지나친 자기 억제로 시냅스 틈에서 작용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감소된다. 이렇게 되면 사소한 일에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한 기분이 되는 등 감정이나 충동 성향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세로토닌 신경 세포의 활성 수준이 자기 수용체 수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세로토닌 자기 수용체를 만드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알면 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 세로토닌 신경 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로토닌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면 모든 일을 평상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걱정거리가 별안간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심이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 『EBS 국어』

【나】 나는 말한다. “천고의 영웅은 잘 울고 미인은 눈물이 많다지만 불과 두어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이 그저 옷깃을 적셨을 뿐이요, 아직까지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돌에서 짜 나온 듯하여 천지에 가득 찼다는 소리를 들어 보진 못했소.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칠정(七情) 중에서 ‘슬픔 감정[哀]’만이 울음을 자아내는 줄 알았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는 줄은 모를 겁니다. 기쁨[喜]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노여움[怒]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즐거움[樂]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고, 사랑[愛]이 사무치면 울게 되고, 미움[惡]이 극에 달하여도 울게 되고, 욕심[欲]이 사무치면 울게 되니, 답답하고 울적한 감정을 확 풀어 버리는 것으로 소리쳐 우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소이다.

울음이란 천지간에 있어서 뇌성벽력에 비할 수 있는 게요.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이 울음과 뭐가 다르겠소?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겪어 보지도 못한 채 교묘하게 칠정을 늘어놓고 ‘슬픈 감정’에다 울음을 짜 맞춘 것이요. 이따라서 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이내 억지로라도 ‘아이고’, ‘어이’라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칠정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하고 참다운 소리는 참고 억눌리어 천지 사이에 쌓이고 맺혀서 감히 터져 나올 수 없소이다.”

- 『EBS 국어』

【다】 우리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괴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낀다. 이에 대해 콜린 레드포드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적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령 우리는 친구가 실제로 아프다고 믿을 때는 그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병이 피병이었음을 알게 되면 동정심은 지속되지 않는다. 즉 감정은 감정의 대상이 실재한다고 믿을 때에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레드포드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 여러 철학자들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비교적 정합적인 해법을 제시한 사람은 켄달 윌튼이다. 그는 소설이나 영화의 감상을 ‘믿는 척하기 놀이(make-believe game)’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했다. ‘믿는 척하기 놀이’란 아이들의 소꿉장난에서 발휘되는 상상력과 같은 것이다. 가령 꼬마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장난감 그릇에 담긴 ‘놀이터의 흙’을 ‘밥’이라며 맛있게 먹는 척하다가 놀이가 끝나면 주저 없이 그것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도 이와 유사한 과정에 의해 감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윌튼은 이러한 자신의 이론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레드포드의 기본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허구적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다만 그는 허구의 대상에 대해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감정이 아니라 ‘유사 감정’일 뿐이라고 했다.

- 『EBS 국어』

[문제2] 제시문 [가]에서 논의한 인간의 감정 표출과 억제의 메커니즘을 요약하고, 제시문 [나]와 [다]는 각각 어떤 감정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는지 비교하여 서술 하시오.

<13 ~ 15줄 (390 ~ 450자)> [30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관객 동원 신기록을 세운 영화 ‘명량’에서 배설(裴榘)은 이순신의 캐릭터와 철저히 대척점에 자리한 악인으로 등장한다. 배설은 이순신을 암살하려는가 하면 거북선을 불태우고 혼자 쪽배를 타고 도망치다 화살에 맞아 죽는 것으로 나온다. 감독을 비롯한 제작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경주 배씨 문중의 당황스러움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 서울신문 (2014, 9.17)

【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관군이 전쟁 초반에 계속 패하면서 서울과 평양을 빼앗기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였다. 그러나 육지와는 달리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일본 수군에게 연승을 거두었다.

(중략)

3년에 걸친 휴전 협정이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침략하였다(정유재란, 1597). 이에 육지에서는 조선군이 명군과 연합하여 직산에서 적의 북상을 막고(직산전투),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을 격퇴하였다(명량대첩). 결국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본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사하자 서둘러 본국으로 철수했고, 7년에 걸친 전쟁은 막을 내렸다.

- 『고등학교 한국사』

【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 전선의 수가 비록 적으나 신이 죽지 않는 한 왜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장면전환>

상(선조)이 이르기를, “부하에 발탁할 만 한 자는 없는가?”

유성룡이 아뢰기를, “배설(裴榘)도 우도 병사(右道兵使)로 삼을 만합니다.”

(중략)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사(水使) 배설이 주사(舟師)의 차장(次將)으로 주장(主將)을 구원하지 않고 도망쳤으며 이제 또 주장의 명령을 어기고 어둠을 틈타 도망쳤으니, 정상이 지극히 미워할 만하여 율에 처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면전환>

후에 병참(兵參) 배설에게 병조판서가 증직(贈職)되었다.

- 『난중일기』, 『선조실록』, 『승정원일기』

【라】 역사 서적을 읽을 때는 관심 있는 사건이나 시대에 대해 두 권 이상의 책을 읽도록 한다. 모든 역사가는 특정한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관으로만 사건이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오해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비판적 관점에서 읽도록 한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자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신뢰할 만한 자료에 기대어 사실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잘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읽어야 한다.

-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마】 일상 생활과 역사 해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사회의 변화가 가속화될수록 거리가 더욱 멀어졌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 지식은 사람들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시험용으로 전락했다. 이제 역사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되었다. 이 틈에 TV 사극은 사람들의 안방을 차지하고, 나아가 역사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의식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다. TV 사극이 끊임없이 제작되고 방영되는 것은 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극에서 재현되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 정두희, 『장희빈, 사극의 배반』

[문제3] 제시문 [가]~[다]를 바탕으로 영화 ‘명량’의 허구성을 추론하여 기술하고, 제시문 [라], [마]를 참조하여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허구적 표현에 대한 수용 태도에 대하여 논하시오.

<18 ~ 20줄 (540 ~ 600자)> [40점]